

석사학위논문

무용 창작 「N의 심연 속에서」 에
대한 연구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영 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창작 「N의 심연 속에서」 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In the Abyss of N」

202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박영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창작 「N의 심연 속에서」 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In the Abyss of N」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영 성

박영성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박 재 홍 (인)

심사위원 김 남 용 (인)

심사위원 정 석 순 (인)

국 문 초 록

무용 창작 「N의 심연 속에서」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영 성

본 논문은 N포세대를 주제로 어려운 사회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요소를 포기하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단면을 표현한 현대 무용 창작 「N의 심연 속에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치솟는 집값, 취업난, 학자금 대출 상환, 불안정한 일자리 등 삶의 필요 요소들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시작해 5포세대(3포세대 +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 + 꿈, 희망)까지 늘어났으며 점점 포기 항목이 늘어나 셀 수도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N포세대까지 발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간다.

이에 본 연구자는 N포세대에 속한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삶의 필요 요소들을 포기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가지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가질 수 없어 포기하게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의 N포세대

모습을 무용 예술적 관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주제의 객관성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많은 매체를 통해서 N포세대 문제의 요인 대한 정보 수집과 N포세대를 겪으며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상태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무너짐이란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무너짐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1차원 적인 행위를 통해 N포세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본 연구자도 N포세대에 포함되어 느꼈던 깊은 어둠에 고립된 듯한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 심연이라는 작품 컨셉을 갖춤으로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선 무드등을 사용하였으며 무대 암전에서 빛을 통해 비추어지는 무용수들의 모습과 빛에 의해 분리되는 공간,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면을 연구하여 N포세대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N포세대=무용수], [어둠=심연], [포기=무너짐]이 세 가지 키워드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많은 것을 포기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N의 심연 속에서」를 통해 N포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N포세대, 포기 항목, 무너짐, 어둠, 심연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N포세대의 정의와 확산	3
2.1 장 폴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N포세대	5
III. 작품개요	7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7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9
3.2.1 움직임 표현방법	9
3.2.2 의상	10
3.2.3 조명	12
3.2.4 음악	14
3.2.5 소품	16
IV. 작품분석	18
4.1 Intro: N포세대	19
4.1.1 내용 및 안무의도	19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9
4.1.3 음악	21
4.1.3 무대장치 및 조명	21
4.2 1장: N의 심연	22
4.2.1 내용 및 안무의도	23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3
4.2.3 음악	25
4.2.4 무대장치 및 조명	26
4.3 2장: 나아지지 않는 현실	27

4.3.1 내용 및 안무의도	27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7
4.3.3 음악	29
4.3.4 무대장치 및 조명	29
4.4 3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30
4.4.1 내용 및 안무의도	30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1
4.4.3 음악	34
4.4.4 무대장치 및 조명	34
4.5 4장: N의 끝에서	34
4.5.1 내용 및 안무의도	35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5
4.5.3 음악	37
4.5.4 무대장치 및 조명	37
V. 결 론	39
참 고 문 헌	41
부 록	42
ABSTRACT	45

표 목 차

[표 1] N포세대의 유래	3
[표 2] 구성 전환의 특징	7
[표 3] 움직임의 표현방법	9
[표 4] 색의 연상과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	11
[표 5] 빛의 방향별 특성	13

그림 목 차

[그림 1-1] 플로어 패턴	21
[그림 1-2] 플로어 패턴	21
[그림 1-3] 플로어 패턴	21
[그림 1-4] 플로어 패턴	21
[그림 2-1] 조명 플랜	22
[그림 2-2] 조명 플랜	22
[그림 2-3] 조명 플랜	22
[그림 2-4] 조명 플랜	22
[그림 3-1] 플로어 패턴	25
[그림 3-2] 플로어 패턴	25
[그림 3-3] 플로어 패턴	25
[그림 3-4] 플로어 패턴	25
[그림 4-1] 조명 플랜	26
[그림 4-2] 조명 플랜	26
[그림 4-3] 조명 플랜	26
[그림 4-4] 조명 플랜	26
[그림 5-1] 플로어 패턴	28
[그림 5-2] 플로어 패턴	28
[그림 5-3] 플로어 패턴	29
[그림 5-4] 플로어 패턴	29
[그림 6-1] 조명 플랜	30
[그림 6-2] 조명 플랜	30
[그림 6-3] 조명 플랜	30
[그림 6-4] 조명 플랜	30
[그림 7-1] 플로어 패턴	33
[그림 7-2] 플로어 패턴	33
[그림 7-3] 플로어 패턴	33
[그림 7-4] 플로어 패턴	33

[그림 7-5] 플로어 패턴	33
[그림 8-1] 조명 플랜	34
[그림 8-2] 조명 플랜	34
[그림 9-1] 플로어 패턴	37
[그림 9-2] 플로어 패턴	37
[그림 9-3] 플로어 패턴	37
[그림 9-4] 플로어 패턴	37
[그림 10-1] 조명 플랜	38
[그림 10-2] 조명 플랜	38
[그림 10-3] 조명 플랜	38

사 진 목 차

[사진 1] 무용수1 의상	10
[사진 2] 무용수2 의상	10
[사진 3] 무용수3 의상	10
[사진 4] 무용수4 의상	10
[사진 5] 소품(무선 무드등)	16
[사진 6-1] Intro: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 1	19
[사진 6-2] Intro: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 2	20
[사진 6-3] Intro: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 3	20
[사진 7-1] 1장: N의 심연 1	23
[사진 7-2] 1장: N의 심연 2	23
[사진 7-3] 1장: N의 심연 3	24
[사진 7-4] 1장: N의 심연 4	24
[사진 7-5] 1장: N의 심연 5	24
[사진 7-6] 1장: N의 심연 6	24
[사진 8-1]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1	27
[사진 8-1]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2	27
[사진 8-1]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3	28
[사진 8-1]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4	28
[사진 9] 3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31
[사진 10-1] 3장: N포세대의 고층 1	31
[사진 10-2] 3장: N포세대의 고층 2	31
[사진 11] 3장: 희망을 놓지 않는 N포세대의 절박함	31
[사진 12] 3장: 좌절의 연속	32
[사진 13] 3장: N의 심연 속에 남겨진 한 사람	32
[사진 14] 4장: N포세대의 억압된 마음	35
[사진 15-1] 4장: 절박함과 분노 1	35
[사진 15-2] 4장: 절박함과 분노 2	35

[사진 15-2] 4장: 절박함과 분노 3	35
[사진 16] 4장: 포기하지 않고 삶을 나아가는 사람들	36

I. 서론

본 연구는 N포세대를 주제로 제작한 현대무용 작품 「N의 심연 속에서」에 대한 분석이며, 본 연구자의 무용 예술적 관점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비추어지는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노력으로도 가지기 힘든 물질적 풍요로움.

포기함으로써 현실의 중압감을 벗어나고자 하는 삼포세대, 오폐세대, 칠포세대에 이어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치솟는 집값, 취업난, 학자금 대출 상황,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주요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시되기도 한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인 거죠.”

남하루(가명·29)씨가 20대에 배워야만 했던 것은 ‘단념하는 법’이었다. 남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그의 부모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여유가 없었다. 남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 외 모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연애 문제로 고민하는 TV 드라마와 영화 속 대학생들의 삶은 결코 남씨에게 허락되지 않았다.¹⁾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지만 현실의 중압감에 여유조차 허락하지 못하

1)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210001569>

는 상황을 보며 ‘살아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삶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N포세대의 고층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자도 N포세대에 포함되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포기 항목을 늘려가며 살아가는 상황을 공감하면서 작품의 연구목적이 생기는 동기가 되었다. 이에 N포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표현하여 N포세대를 겪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단면을 본 연구자의 무용 예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장 폴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본 N포세대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N의 심연 속에서」의 작품은 N포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투영되는 우울한 모습을 어두운 심연에 비유하여 작품의 컨셉을 잡았다. 전반적인 어두운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무대 암전의 어둠에서 무선 무드등 빛을 다루는 실험적인 연구를 하였고, N포세대를 고찰하며 무너짐이란 공통적인 단어의 발견을 통해 무너짐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움직임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작품이 무겁고 우울할 수 있지만,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는 현실을 견디며 버티고 나아가는 N포세대의 절박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대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2.1 'N포세대'의 정의와 확산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²⁾

[표 1]로 'N포세대'의 유래를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삼포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
오포세대	삼포세대 +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
칠포세대	오포세대 + 꿈, 희망을 포기
N포세대	칠포세대 이후에 포기하는 N가지를 더 포기

'N포세대'는 2015년 취업 시장 신조어로 시작되어 불안정한 현대인의 상황을 보여주며 한국에서는 극심한 취업난과 더불어 노력을 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인식들로 확산이 되었다.

대학생 및 취업 커뮤니티에서 136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10명 중 7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N포세대라고 여긴다.³⁾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3345263&categoryId=43667>

3) 김지애. (2017)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또한 현대인들은 ‘N포세대’를 겪으면서 포기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응답 중 눈에 띄게 공통적인 항목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세대 3명 중 2명 이상이 삶의 주요 가치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포기했다고 밝힌 구체적 항목은 결혼(56.8%), 꿈과 희망(56.6%), 내 집 마련(52.6%), 연애(46.5%), 출산(41.1%), 인간관계(40.7%) 등이었다.⁴⁾

통계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삶의 필요 요소들을 배제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수입에 비해 생활에 쓰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폭등하는 집값, 학자금 대출 상환, 생활고 등과 고 스펙 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 압박을 받으며 자신에게 지출하는 것 외에는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N포세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자면, 결혼 또한 서로를 좋아하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기보다 비즈니스적 결혼관의 보편화와 부담되는 결혼 비용 등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겨준다.

결혼을 했음에도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되며 이 또한 경제적 압박에 포함되면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포기의 요인이 늘어나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개인의 삶을 즐기는 것에 자본을 사용하는 N포세대가 급증하며 자연스럽게 결혼, 출산, 연애,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게 되는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N포세대 문제는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N포세대의 문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구직 정책, 일자리 정책, 보증금, 월세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지만 미비한 효과로 인해 N포세대는 여전히 삶의 많은 요소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에 대한 미래는 어둡게 느껴질 뿐이다. N포세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한계가 있다면 ‘N포세대’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 관점으로 다가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4)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210001569>

2.2 장 폴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N포세대

N포세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왜 현대인들은 연애, 결혼, 출산부터 인간관계, 꿈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가. 또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포기함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문들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장 폴 사르트르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실존주의(實存主義, Existentialism)’는 차라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신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존이 결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즉 신이 실존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신의 실존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 자신을 되찾아야 하며,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인간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⁵⁾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신이 아닌 인간이 선택하여 추구하는 것이라 말하며 “인간은 하나의 실존적 존재로,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한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르트르의 주장을 좀 더 풀어보자면 ‘인간의 실존’은 외부세계로부터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는 원인과 결과가 아닌 단순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본질은 스스로 지향하고 무한히 선택한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본 N포세대의 모습은 스스로 본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N가지의 포기 항목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잃어간다. 이런 N포세대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관하면서도 다른 선택지를 외면하고 포기라는 선택밖에 없다는 자기합리화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포기하는 상황을 극복하기보다 포기함에 점차 안주하며 불만만 생겼던 것은 아닐까.’라는 본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진정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을 원한다면 포기가 아닌 다른 선택을 통해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한다.

5) 박경태 역 (2008),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이학사, p.87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자신 스스로의 몫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르트르의 철학을 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면서 단순히 포기하며 발생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포기 외에 다른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또한 표현하고자 한다.

Ⅲ. 작품 개요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의 작품 「N의 심연 속에서」는 N포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단면을 모티브로 움직임 방법 및 형식을 연구하였으며, Intro를 포함해 총 5장의 구성으로 나누고 Ryoji Ikeda의 4곡을 한 곡으로 MIX 한 음악과 The Antles의 Kettering 1곡을 사용하였다. 또한 작품의 컨셉인 심연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무대 암전을 이용했으며 전반부에 무대조명 대신 사용하는 조명 소품(무선 무드등)을 통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표 2] 구성 전환의 특징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음악	시간
Intro	N포세대	암전인 상태에서 무선 무드등 1을 사용 연기와 행위로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표현	무음	2분
1장	N의 심연	무선 무드등1, 2를 사용 행위에서 움직임으로 발전 듀엣을 통한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부각	Ryoji Ikeda- zone 1, zone 2, zone 5, movement 1 (mix)	3분

2장	나아지지 않는 현실	무드등 1, 2를 사용 트리오를 통한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고조	Ryoji Ikeda- zone 1, zone 2, zone 5, movement 1 (mix)	2분
3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무드등의 색과 비슷한 전체 조명으로 전환 네 무용수의 군무와 바디 컨택을 통해 표현	Ryoji Ikeda- zone 1, zone 2, zone 5, movement 1 (mix)	5분
4장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솔로의 달리기 네 무용수의 걷는 모션	The Antles- Kettering	4분

“두려움으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체를 감추는 역할의 어둠이다. 감추어진 풍경은 그 안에서 상상력을 더해서 감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⁶⁾

연구 과정에서 무대 암전의 어둠을 배경으로 작품의 긴장감과 몰입력을 높이는 연출을 하였으며, 무선 무드등의 빛에 의해 장면이 전환되고 움직임이 비추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6) 배은경 (2004). "빛과 어둠 - 드러냄과 감추어짐의 표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표현방법

「N의 심연 속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솔로를 제외한 듀엣, 트리오, 군무까지 바디 컨택 (Body Contact)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너짐을 자발적으로 하는 솔로의 움직임부터 듀엣의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통한 무너짐이 높낮이 레벨을 만들어가고, 트리오로 전환되며 더 높은 곳에서 무너짐의 시작되는 기점을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군무에서 네 명의 무용수가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통해 상, 하의 높낮이 레벨뿐만 아닌 좌, 우를 통해서도 무너짐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런 시너지들이 쌓여 마지막 장면에서 무용수의 솔로 움직임이 더 격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움직임 리서치를 하였으며 작품의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연기적 요소를 추가함으로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연구하였다.

[표 3]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탐구	특징
방향	무너짐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에서 투영되는 형태
안무	솔로, 듀엣, 트리오, 군무	안무 구성을 통해 N포세대의 공통적인 단어 무너짐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 표현
연기	분위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연기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 작품의 다음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

3.2.2 의상



[사진 1] 무용수 1 의상



[사진 2] 무용수 2 의상



[사진 3] 무용수 3 의상



[사진 4] 무용수 4 의상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극)를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 즉 연극, 무용 (현대 무용, 발레 등),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이라 말한다.⁷⁾

작품에 있어서 의상은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일상복의 형태로 정하였으며 바디 컨택 (body contact)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피감이 큰 의상들을 착용하였다.

[표 4] 색의 연상과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⁸⁾

분류	색의 연상과 의미	무대의상의 상징적 표현
 적색	태양, 피, 정열, 사랑	생명, 열정적인 사랑 표현, 감정적인 사랑
 갈색	가을, 풍요, 평온, 세속적	일반 대중적인 사람, 평범하고 친근한 느낌 표현
 황색	금, 빛, 교만, 질투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 배신자, 반역자, 의심 많은 사람
 미색	성실, 인내, 평온, 안정	차분한 사람, 성실함을 표현, 안정적인 분위기
 녹색	초원, 평화, 청춘, 안전	농부, 정원사, 하인의상
 자색	고귀, 우아, 장엄	왕, 귀족, 고위성직자, 고독한 분위기, 신비적 분위기
 청색	바다, 신비, 침착, 고요	냉정하고 고독한 사람, 고상하고 억제된 행동표현
 백색	탄생, 순결, 진실, 고독	천사, 성직자 의상, 혼례복, 상복,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 표현
 회색	재, 겸손, 우둔, 무기력	피동적인 사람, 노인을 상징,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 효과
 검정	어두움, 죽음, 엄격, 공포	예복, 상복, 쓸쓸한 사람, 엄숙하고 심원한 느낌 표현

7) 김현숙(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25

8) (참고자료: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0. 연구자 재구성.)

의상의 색상은 네 무용수의 공통된 회색 바탕에 한가지 색감을 추가하였다. 먼저 회색은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에 부가적으로 우울한 느낌이 추가되었고 공통적인 색을 통해 무용수들이 N포세대임을 암시할 수 있었으며 작품의 분위기와 각각의 무용수에게 어울리는 색감의 절충선을 찾고자 하였다.

[사진 1]의 무용수는 미색의 성실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어울렸으며 2장의 주요 역할로 등장하면서 의상의 색과 무용수 이미지가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와 대조되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사진 2]의 무용수는 작품 전반부에서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하다가 중반부부터 존재감을 알리는 역할에 있어 평범하고 친근한 느낌의 갈색이 잘 어울렸다. [사진 3]의 무용수는 비슷한 톤을 가진 무용수들과는 달리 짙은 녹색의 안정적인 느낌과 청색의 냉정하고 억제된 느낌으로 지속적인 시선이 가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중립 역할을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진 4]의 무용수는 회색의 통일성을 통해 불확실하며 우울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역할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로써 색감을 통해 작품에서 무용수들의 역할과 이미지를 구축하여 섬세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3.2.3 조명

본 연구 「N의 심연 속에서」는 Intro부터 2장까지 무대 암전에서 무선 무드등의 빛으로 진행되기에 무대조명 사용이 없다. 하지만 3장에서부터 무선 무드등 빛이 퍼지는 한계점인 부분을 무대조명으로 해결하여 작품의 흐름을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능하게 하였다.

“무대조명의 기능은 무용수에게 주어진 주위환경에 처하게 된 동기를 설정해 주며 안무자의 안무 의도를 보다 논리적 또는 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있다.”⁹⁾

3장에서의 조명은 옆광 (side light)의 짙은 주황 빛과 전체 조명의 낮은 밝기를 통해 무용수들의 신체에 그림자가 묻도록 하면서 무대의 공간과 작품의 흐름을 확장 시키도록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솔로의 움직임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윗광 (top ligh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윗광 (top light)에서 옆광 (side light)과 전체 조명의 전환을 통해 무용수의 격렬한 움직임을 부각시켰으며, 백색 뒷광(back light)의 은은하게 비추어지는 실루엣 효과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빛의 방향별 특성¹⁰⁾

빛의 방향	시각적 선명도	극적 효과	분위기
뒷광 (back light)	사실적 표현을 위해 추가되어 사용된다.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는데 유용	후광만 있을 때 무서운 분위기
상측광 (high side light)	가시성이 떨어진다.	극적인 효과에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옆광 (side light)	상측광과 비슷하나 사실성이 떨어진다.	극적인 효과에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9) 문예진흥원(1981). 장치조명. P.243-272

10)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41). (주)교보문고.

윗광 (top light)	부적합하며 그림자가 심하게 생긴다.	배우를 비출 때 매우 강한 효과	공격적인 분위기
-------------------	---------------------------	----------------------	----------

3.2.4 음악

“무용은 독립성이 강한 예술이 아니며 육체에 의해 표현하는 말없는 예술이다. 또한 그 전달성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또한 따른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달. 표현을 위해 안무가들은 미술과 음악 등의 다른 예술의 기능을 가져왔으며, 그 중 음악은 작품의 outline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음악은 무용 작품의 분위기와 흐름을 좌우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움직임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작품의 의도에 대해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N의 심연 속에서」의 작품에는 시각 예술가이자 사운드 디자이너인 Ryoji Ikeda 의 Zone 1, Zone 2, Zone 5, Movement 1의 음악을 MIX 하여 한 곡으로 편곡했으며, The Antlers의 Kettering 음악으로 총 두 곡을 사용하였다.

Ryoji Ikeda의 음악은 사인 톤 이나 소음, 고주파 같은 다양한 “원시” 상태의 소리와 사무치듯 공허한 느낌에 대한 본질적인 소리를 다룬다. 이런 Ryoji Ikeda의 음악은 본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에 적절한 음악이라 판단하여 4곡을 선정해 조합한 다음 한 곡이 되게 편곡하였다. 이렇게 편곡한 곡은 1장의 시작부터 3장까지 사용이 되면서 작품의 분위기와 무용수의 움직임 표현에 outline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The Antlers의 Kettering 곡은 앞서 Ryoji Ikeda의 곡이 쌓아 올린 음악적 시너지와 무용수들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11) Humphrey, Doris. 김옥규, 김말복, (1983) 현대무용입문. 서울: 청하, p.177

음악의 특색은 잔잔하면서 울부짖는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와 몽환적인 멜로디를 담고 있으며 중반부부터 밴드의 드럼과 베이스의 과잉된 소리, 마지막엔 여성 목소리의 후렴으로 작품의 흐름을 절정에 이르도록 하였다.

남성이 부르는 가사의 내용은 이렇다.

“When I was checking vitals I suggested a smile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있을 때, 난 좀 웃어보는 게 어떨냐고 말했지)...

And I didn't believe them when they told me that there was no saving you”
(그리고 난 그들이 널 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믿지 않았어)¹²⁾

The Antlers의 Kettering 가사의 내용에서 N포세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떠올랐다. 음악의 역동적인 밴드 사운드에 무용수가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무대를 질주하면서 N포세대의 고충을 표출하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N포세대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다.

12) <https://blog.naver.com/shakespeare/221806389226>

3.2.5 소품



[사진 5] 소품 (무선 무드등)

“무대소품은 공간상의 모양, 크기, 부피, 형태 그리고 짜임새를 동작에서 이미 보이는 것을 강화하거나 대조함으로써 변화한다. 소품은 종종 무용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하다. 아마도 가장 자주 동작 선을 넓혀 주기도하고 동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소품과 세트는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극적인 느낌을 가지는데 사용된다.”¹³⁾

작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5]와 같은 무선 무드등을 사용하였으며 Intro부터 2장까지 무드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자 의도에 따르면 작품의 컨셉인 심연의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무대 암전이 꼭 필요하였고, 어둠에서 비추어지는 N포세대들의 우울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무선 무드등을 사용하였다.

무선 무드등은 무용수의 신체 전체를 노출하기보다 특정 부분을 노출함으

13) g.체니/자넷스트레이드(1994) 『무용창작의 기초적 접근』, 김귀자/백현순(역), 현대미학사, p.123

로 움직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었으며, 무선 무드등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무용수의 움직임과 분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전환하는 시각적 연출을 할 수 있었다.

Intro는 무용수 한 명이 한 개의 무선 무드등의 빛을 사용하였고 다른 무용수를 비추면서 N포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빛을 비추며 자신 또한 N포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장은 앞서 말한 무용수가 가지고 있던 무선 무드등을 다른 무용수가 가져가며 두 개의 무선 무드등을 통해 조금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공간의 확장과 무용수 움직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한다.

무선 무드등의 빛 역할을 하는 무용수는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며 빛의 다양한 각도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와 무용수들의 이미지를 이끌어간다.

2장에서는 무선 무드등 빛이 무용수들의 노출을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빛 역할을 하던 무용수가 자신에게 빛을 비추면서 무너지고 플로어로 내려가 무선 무드등을 끄고 전체 조명으로 전환 되면서 3장의 시작을 암시한다.

IV. 작품 분석

안무	박영성
출연	박영성, 양서진, 김주현, 유예진
음악	Ryoji Ikeda - Zone 1, Zone 2, Zone 5, Movement 1 (MIX) The Antlers - Kettering
소품	무선 무드등 2개
작품시간	약 17분

1. 작품의도

가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닌 가질 수 없어 체념하는 N포세대.

N포세대라 불리는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반면 치솟는 집값,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난 등 사회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포기라는 벽 앞에서 좌절감을 겪는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조명되는 N포세대의 문제에 대해 본 안무자만의 예술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N포세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작품내용

현실의 중압감은 마치 심연의 깊은 구렁과도 같았다.

4.1 Intro: N포세대

4.1.1 안무 의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을 포기하며 생긴 N포세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하였다.

암전인 무대에서 한 명의 무용수가 무선 무드등 빛을 자신에게 3번 켜다 끄를 반복으로 작품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다른 무용수들의 무너지는 행위를 비추어주며 늘어나는 포기 항목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N포세대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6-1] Intro: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 1



[사진 6-2] Intro: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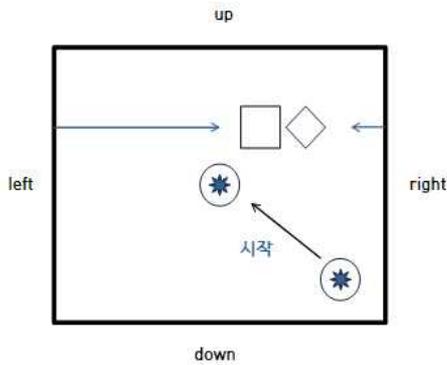


[사진 6-3] Intro: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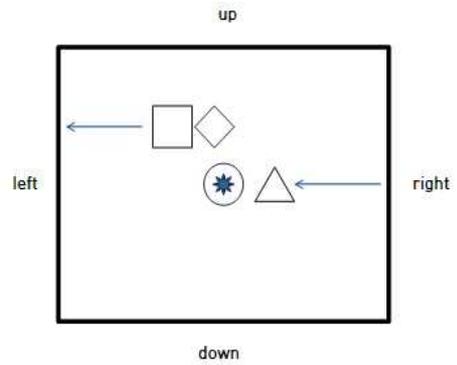
Intro는 움직임보다 연기와 무너지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으며 무선 무드등의 작은 빛 주변에 퍼져있는 어둠을 통해 작품의 무거운 분위기를 암시하고자 하였다. 시작부터 암전 상태인 무대에서 무용수 A가 센터로 걸어가며 자신에게 한 개의 무선 무드등 빛을 3번 쬐다 꿈을 반복하고 작품의 시작을 알린다. 센터에 도착한 무용수 A는 무선 무드등 빛을 [사진 6-1], [사진 6-2]처럼 다른 무용수 C, D 그리고 B에게 비추면서 N포세대의 우울한 모습을 표현한다. 빛이 다시 무용수 A 자신을 비추며 [사진 6-3]처럼 본인 또한 N포세대를 겪고 있는 현대인 중 한 명임을 암시하고 바닥으로 무너지는 행위를 한다.

플로어 패턴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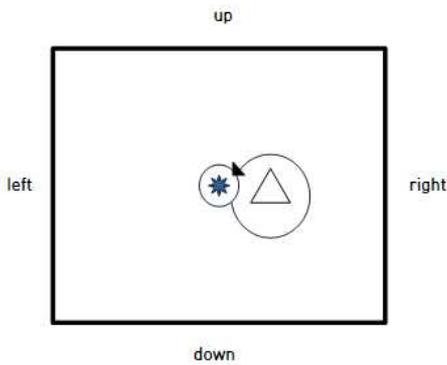
○=무용수 A, △=무용수 B, □=무용수 C, ◇=무용수 D, ★ =무선무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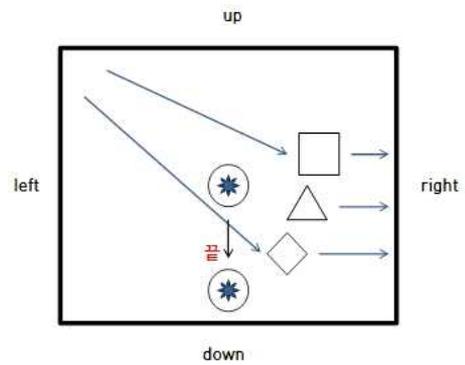
[그림 1-1] 플로어 패턴



[그림 1-2] 플로어 패턴



[그림 1-3] 플로어 패턴



[그림 1-4]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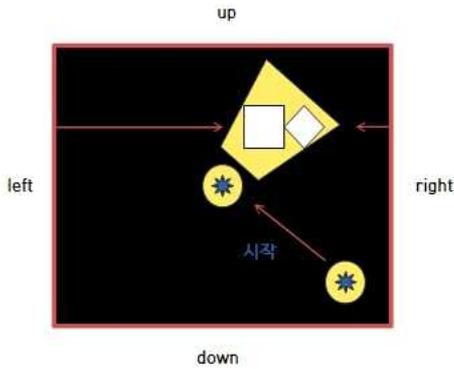
4.1.3 음악

Intro는 작품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 무음을 사용하였으며 자연스럽게 플로어에 몸이 마찰되는 소음이나 걷는 소음을 통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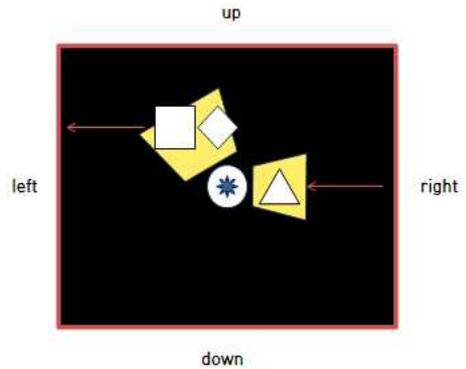
4.1.4 무대장치 및 조명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무대 암전인 상태에서 무대조명 대신 무선 무드등 한 개를 사용하였으며 암전으로 발생하는 어둠과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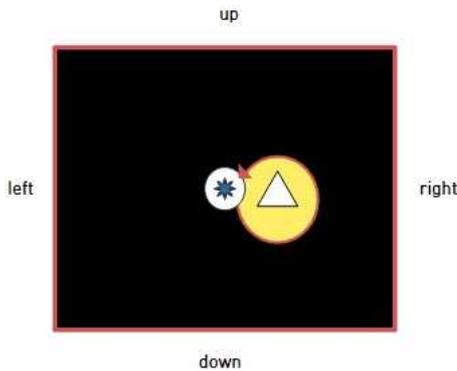
선 무드등 빛이 대조됨을 강조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무선 무드등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면서 무용수 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비추는 다양한 각도와 빛의 면적, 공간을 분리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시각적 효과를 증폭시켰다. 아래의 그림표로 무대 암전인 상태에서 무드등 빛의 사용 동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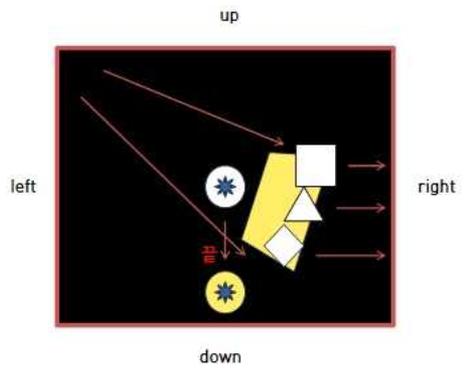
[그림 2-1] 조명 플랜



[그림 2-2] 조명 플랜



[그림 2-3] 조명 플랜



[그림 2-4] 조명 플랜

4.2 1장: N의 심연

4.2.1 내용 및 안무의도

“인간은 누구나 극한의 상황에서 원초적인 본성의 심연과 마주하게 된다.”¹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N포세대의 모습은 어둠이 깊은 심연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늘어나는 포기 항목에 의해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꿈과 희망을 놓아버리면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게 되는 N포 세대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의도하였다. 앞서 Intro에서 표현한 무너지는 행위를 무용적 움직임으로 발전시켜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통한 듀엣으로 구성하였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7-1] N의 심연 1



[사진 7-2] N의 심연 2

14)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example&query=%EC%8B%AC%EC%97%B0>



[사진 7-3] N의 심연 3



[사진 7-4] N의 심연 4



[사진 7-5] N의 심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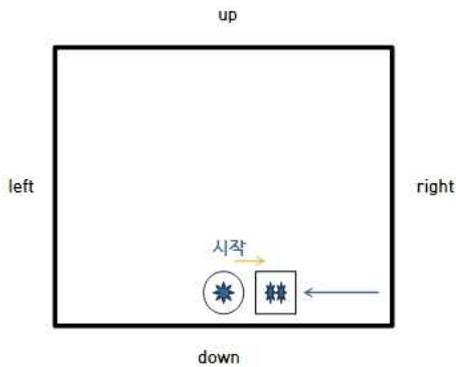
[사진 7-6] N의 심연 6

1장은 무용수 A가 Intro에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며 들고 있던 무선 무드등을 [사진 7-1]과 같이 무용수 C에게 전달되고 음악의 시작과 함께 1장의 시작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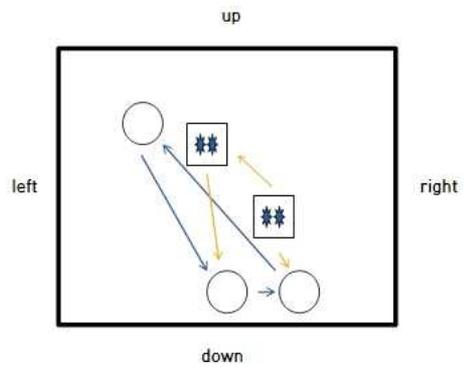
어두운 공간에서 한 개의 무드등이 더 켜지고 두 개의 무선 무드등 빛이 비추어지며 무용수 A는 [사진 7-2]처럼 무너지는 행위에서 파생된 움직임의 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포기 항목에 의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스스로 움직이기를 포기하고 무용수 A는 쓰러지게 된다.

[사진 7-3]과 같이 또 다른 무용수 B가 등장하며 수동적인 상태인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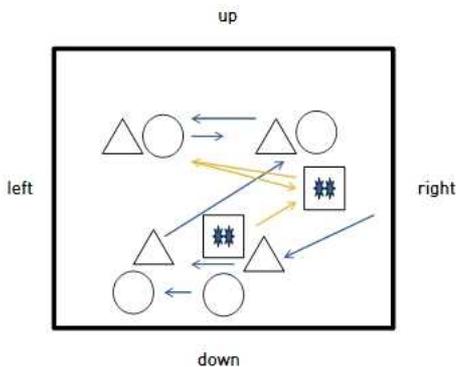
용수 A의 몸을 무용수 B가 움직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듀엣 바디 컨택 (Body contact)이 진행된다. Down Level, Middle Level, High Level의 높이를 통해 [사진 7-4], [사진 7-5], [사진 7-6]처럼 무너짐이란 움직임의 키워드를 발전시킨 듀엣을 하면서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조금 더 확장하여 표현한다. 이때 무선 무드등의 빛은 지속적으로 무용수들을 팔로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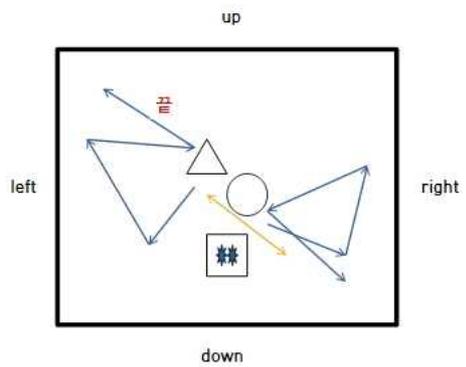
[그림 3-1] 플로어 패턴



[그림 3-2] 플로어 패턴



[그림 3-3] 플로어 패턴



[그림 3-4]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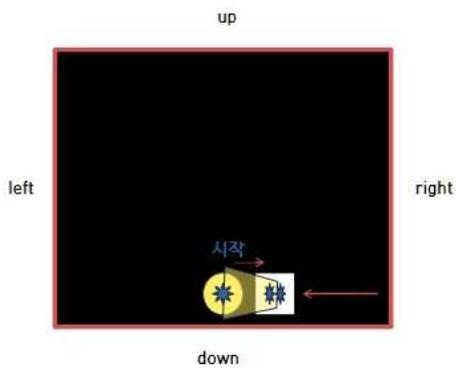
4.2.3 음악

무용수 C가 무용수 A의 무선 무드등을 가져가면서 음악이 시작되고 Intro에서 1장으로 전환됨을 알린다. Ryoji Ikeda 의 Zone 1, Zon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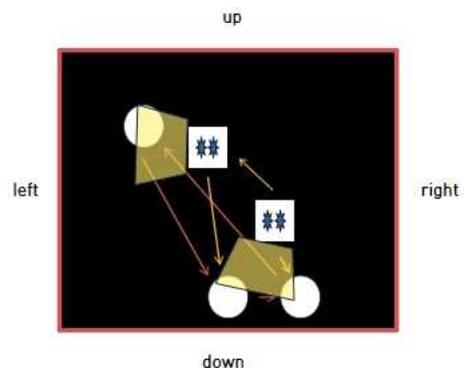
Zone 5, Movement 1의 음악을 하나로 MIX 하여 편곡한 음악을 사용하였으며 Ryoji Ikeda의 음악은 주로 고주파 사운드를 사용하는데 작품에서 또한 고주파의 Level을 나타내는 곡을 선곡하여 음악을 MIX 하였다. 이렇게 편곡한 곡의 느낌은 어둡고 차가움이 강조되면서 별도의 비트 없이 고주파의 소리와 별개의 음색과 백색 소음은 작품의 1장부터 3장까지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Outline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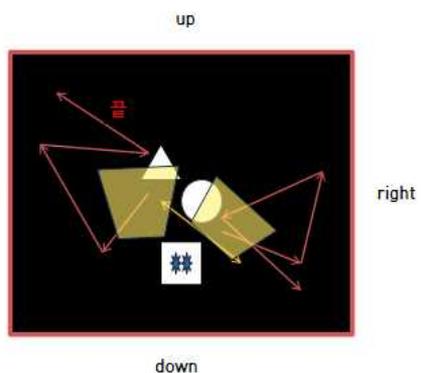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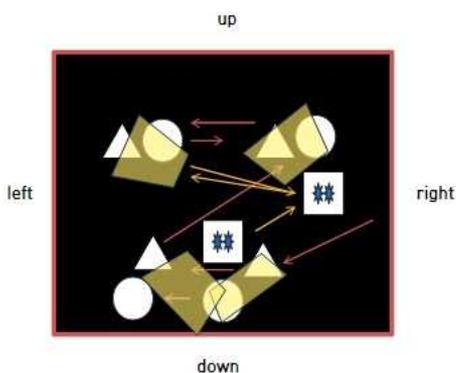
Intro에서 한 개의 무선 무드등이 사용되었다면, 1장에서는 두 개로 늘어나면서 빛이 조금 더 밝음으로 인해 암전의 어둠과 더욱 대조되어 작품의 분위기를 높일 수 있었다. 추가적인 빛은 무대 공간을 분리함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림 4-1] 조명 플랜



[그림 4-2] 조명 플랜



[그림 4-3] 조명 플랜

[그림 4-4] 조명 플랜

4.3 2장: 나아지지 않는 현실

4.3.1 내용 및 안무의도

포기 항목이 늘어나는 N의 심연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심연을 걷고 있는 사람만 늘어날 뿐.

삶의 요소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N포세대의 우울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였으며, 또 다른 무용수가 등장하면서 쓰러지는 무용수를 받고 세우고 들어 올리는 리프트 방식의 트리오로 구성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8-1]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1



[사진 8-2]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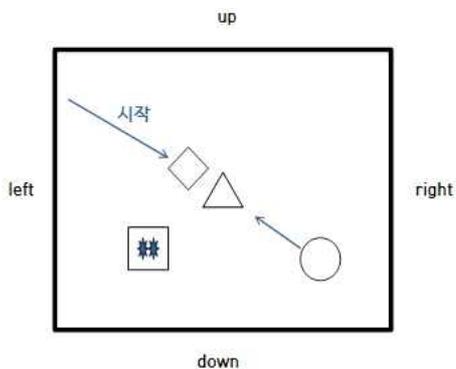


[사진 8-3]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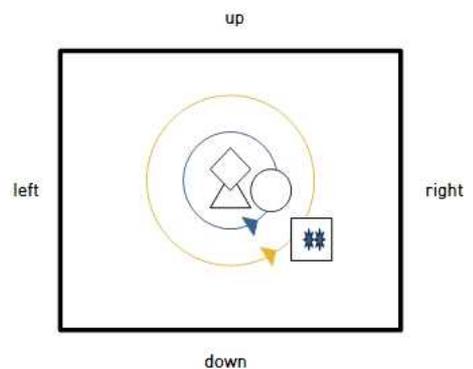


[사진 8-4] 2장 지쳐가는
몸과 마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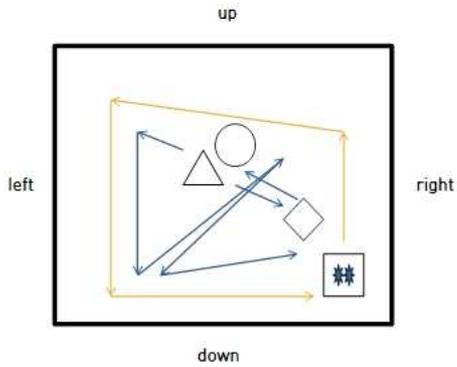
2장에는 [사진 8-1]과 같이 무용수 D의 등장으로 무용수 A와 B의 듀엣 흐름을 트리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며 리프트를 위주로 [사진 8-2], [사진 8-4]처럼 무너짐의 높낮이를 더욱 확장 시켰다. 또한, 트리오에서 연기적 요소를 추가하여 무용수 D가 무용수 A, B의 몸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위쪽을 바라보는 연기를 통해 N포세대의 고충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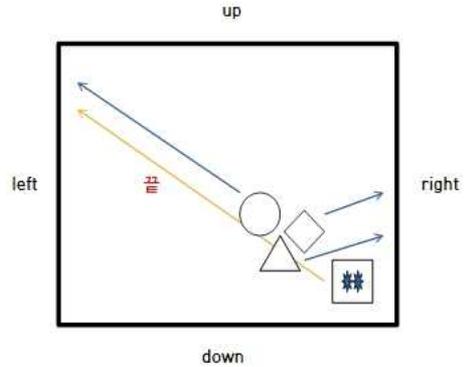
[그림 5-1] 플로어 패턴



[그림 5-2] 플로어 패턴



[그림 5-3] 플로어 패턴



[그림 5-4]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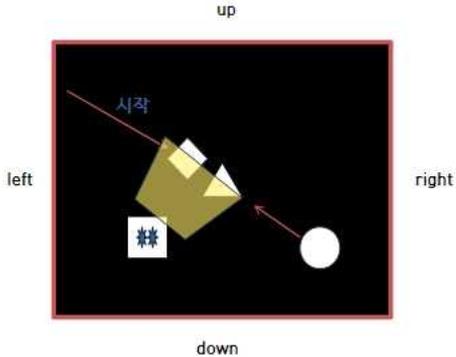
4.3.3 음악

1장과 동일하게 Ryoji Ikeda의 4곡을 편곡하여 MIX 한 음악이 그대로 사용되며 점점 고조되는 주파수 음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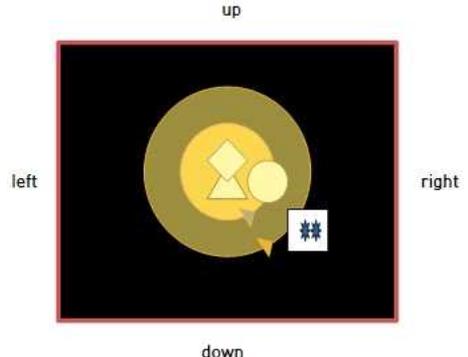
4.3.4 무대장치 및 조명

무용수 C의 무선 무드등 두 개를 사용한 빛으로 진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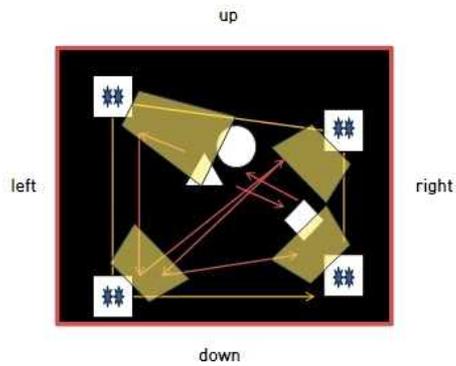
무선 무드등 빛은 한정적으로 무대 공간을 만들며 무용수 A, B, D 트리오의 신체 일부분에서 전체적인 노출까지 빛의 다양한 각도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용수 C가 빛을 자신에게 비추고 플로어로 무너지면서 무선 무드등을 끄고 동시에 무대조명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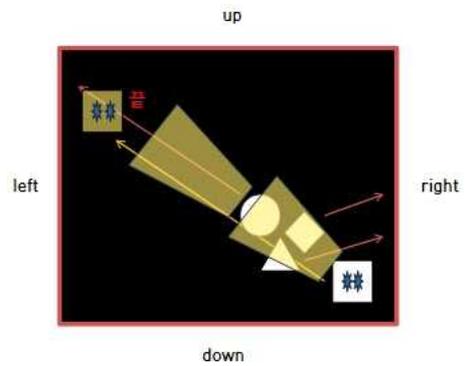
[그림 6-1] 조명 패턴



[그림 6-2] 조명 패턴



[그림 6-3] 조명 패턴



[그림 6-4] 조명 패턴

4.4 3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4.4.1 내용 및 안무의도

N 가지의 포기 항목에 고립된 어두운 심연을 나아가는 N포세대들은 희망보다 절망에 가까운 삶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점점 피폐해지는 얼굴로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포기의 굴레에 끝은 어디에 있으며 이런 시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살아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N포세대들의 절박함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9] 3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진 10-1] 3장 N포세대의 고충 1



[사진 10-2] 3장 N포세대의 고충 2



[사진 11] 3장 희망을 놓지 않는
N포세대의 절박함



[사진 12] 3장 좌절의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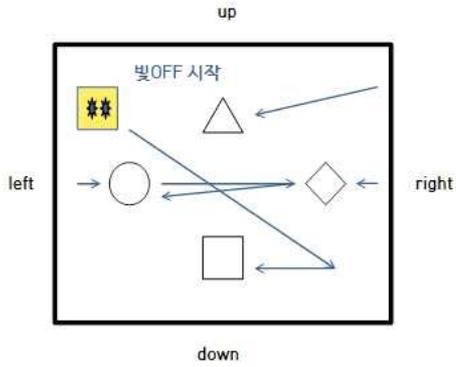


[사진 13] 3장 N의 심연 속에
남겨진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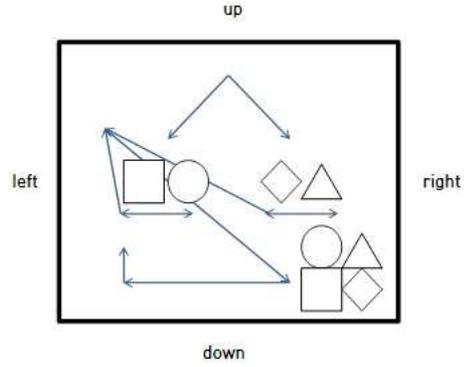
3장의 시작은 1장에서 2장까지 무선 무드등 2개의 빛을 다루던 무용수 C가 [사진 9]처럼 자신에게 비추던 무선 무드등 빛을 끄면서 센터 상수로 이동하며 솔로를 시작한다. (이때 무선 무드등이 꺼지며 전체 조명으로 전환 된다.)

무용수 C의 솔로가 끝나는 타이밍에 [사진 10-1]처럼 무용수 A, D, B 순으로 잠깐의 솔로를 보여주며 [사진 10-2]와 같이 바디 컨택 (body contact)과 리프트 위주의 군무로 연결된다. 높낮이로 무너짐의 레벨을 만들었던 2장과는 달리 군무는 상, 하, 좌, 우의 전체적인 레벨을 사용해 다양한 바디 컨택 (body contact)을 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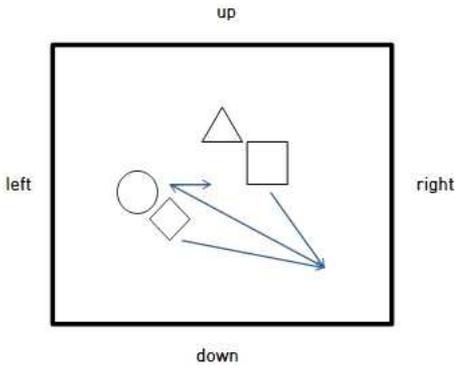
서로에게 기대고 무너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면서 N포세대의 개개인이 가진 늘어가는 포기기에 대한 고충을 공유하고 [사진11],[사진12]처럼 살아감에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절박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음악에서 나오는 바이탈 싸인 소리와 함께 무용수 A는 살아감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고 무용수 B, C, D가 무용수 A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주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무용수 A는 [사진 13]과 같이 쓰러진 채 혼자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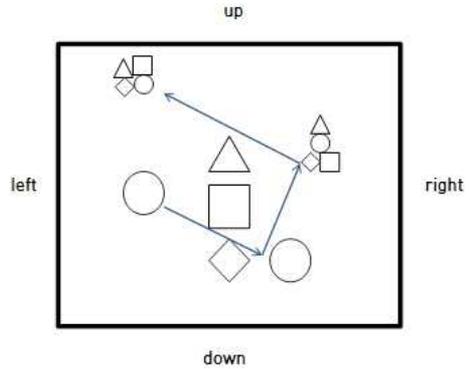
[그림 7-1]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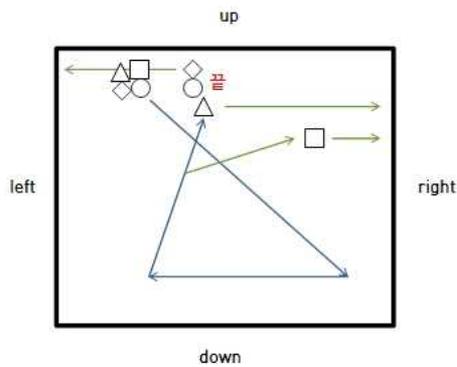
[그림 7-2] 플로어 패턴



[그림 7-3] 플로어 패턴



[그림 7-4] 플로어 패턴



[그림 7-5] 플로어 패턴

4.4.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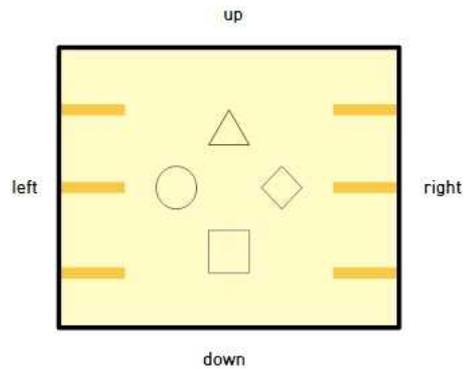
Ryoji Ikeda의 편곡한 음악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백색소음의 레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면서 무용수들의 군무를 고조시켰다. 군무의 끝에 무용수 A는 플로어로 무너지는데 이후 바이탈 사인 소리가 백색소음과 오버랩 되면서 나오게 된다. 바이탈 사인 소리는 맥박, 호흡, 혈압과 같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소리가 되는데 3장의 마지막에 무용수 A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4.4.4 무대장치 및 조명

무용수 C가 가지고 있던 두 개의 무선 무드등 빛을 끄고 동시에 전체 조명으로 전환이 되면서 3장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전체 조명과 옆광 (side light)은 무선 무드등의 주황빛 농도에 맞추어 작품의 흐름에 이질감이 없도록 하였으며, 무용수들의 몸에 실루엣이 은은하게 묻어 날 수 있도록 보이게 하였다.



[그림 8-1] 조명 패턴



[그림 8-2] 조명 패턴

4.5 5장: N의 끝에서

4.5.1 내용 및 안무의도

더 이상 포기 항목이 늘어날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소한 일상의 행복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N포세대의 복합적인 마음을 표출하고 부가적으로 이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살아있고,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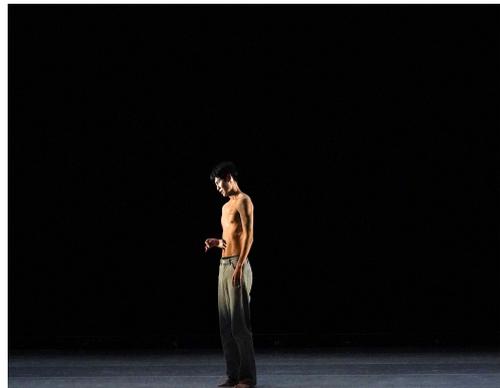
[사진 14]N포세대의 억압된 마음



[사진 15-1] 절박함과 분노 1



[사진 15-2] 절박함과 분노 2



[사진 15-3] 절박함과 분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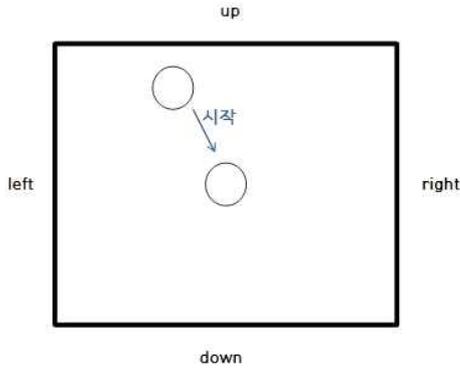
[사진 16] 포기하지 않고
삶을 나아가는 사람들

4장은 작품 주제의 핵심인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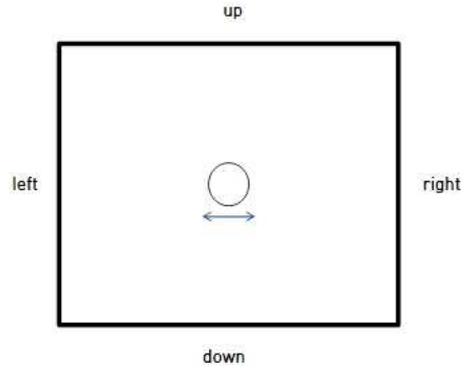
앞서 Intro부터 3장까지 작품의 에너지를 쌓아 올린 N포세대 고층들을 한 번에 표출하고자 역동적이고 격렬한 행위와 움직임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자 또한 N포세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내, 외적인 상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3장의 마지막에 쓰러져 있던 무용수 A는 [사진 14]처럼 탐 조명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된다. 이때 무용수 A는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N가지의 고층들을 회상한다. 절망적인 삶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의미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이후 무용수 A는 고조되는 밴드 음악과 함께 [사진 15-1]과 [사진 15-2]처럼 전속력으로 원의 형태로 무대를 질주하면서 억눌려있던 감정을 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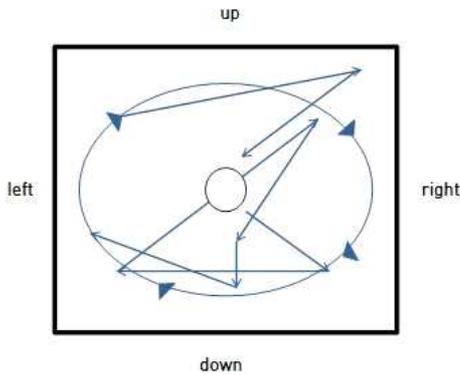
무용수 A의 질주가 무대 센터에서 끝이 나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움직임을 하고 [사진 16]과 같이 무용수 B, C, D가 다시 등장하면서 함께 제자리에서 걷는 움직임 반복하면서 음악과 함께 작품이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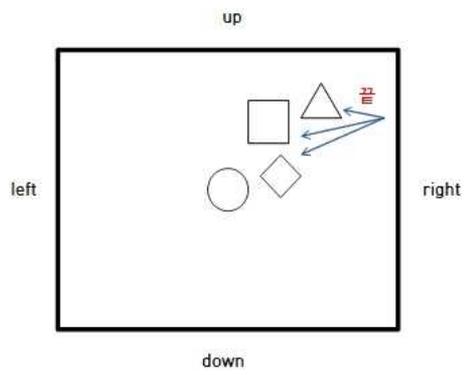
[그림 9-1] 플로어 패턴



[그림 9-2] 플로어 패턴



[그림 9-3] 플로어 패턴



[그림 9-4]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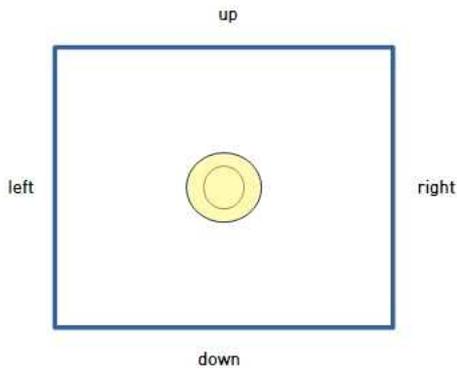
4.5.3 음악

센터에 윗광(top light)이 들어오면서 음악이 시작되며 The Antlers-Kettering의 밴드 곡을 사용하였다. 이 곡은 전반부에 몽환적인 남자 목소리와 멜로디, 후반부에 강한 밴드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4장의 격렬한 움직임과 N포세대의 복합적인 감정, 포기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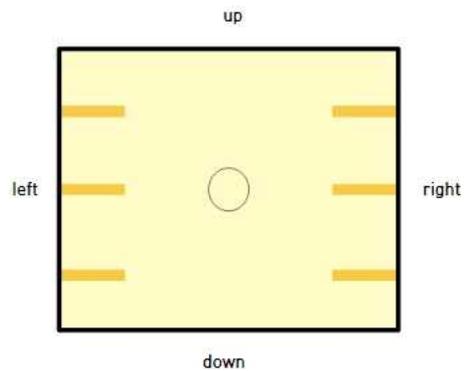
4.5.4 무대장치 및 조명

4장은 3장의 음악이 서서히 끝나면서 무대 전체 조명에서 윗광(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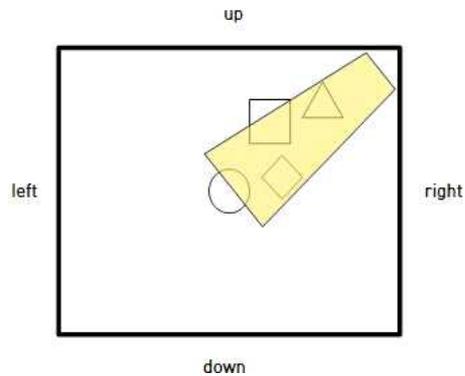
light) 으로 전환이 되며, 솔로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윗광 (top light), 고조된 움직임을 할 때 무용수의 동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무대 전체 조명과 옆광 (side light)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조명으로는 네 명의 무용수 뒷모습에 빛이 묻어지는 백색의 후광(back light)을 사용하였다.



[그림 10-1] 조명 플랜



[그림 10-2] 조명 플랜



[그림 10-3] 조명 플랜

V. 결 론

본 논문은 N포세대를 주제로 제작한 「N의 심연 속에서」에 대한 분석이며, 본 연구자의 무용 예술적 관점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비추어지는 N포세대의 우울한 단면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N포세대란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치솟는 집값, 취업난, 학자금 대출 상황, 물가 상승 등 사회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N포세대들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많은 매체를 통해서 N포세대의 고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N포세대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상태를 고찰하여 무너짐이란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하였으며 무너짐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움직임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이는 1차원적인 행위를 통해 관객에게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N포세대의 광범위한 고층들을 포괄적으로 좁힐 수 있는 표현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너짐의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 늘어나는 N가지의 포기 항목들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를 대변하며 이렇게 쌓여가는 무너짐의 과정은 N포세대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가적으로 무선 무드등 소품을 사용함으로 무대 암전에서 비추어지는 무용수들의 모습과 빛에 의해 분리되는 공간,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면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비추었을 때 빛의 선명도에 의해 가시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장면을 포기하고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만 노출 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N포세대는 수많은 삶의 요소를 포기 한 상태이지만, 포기했다는 의미 자체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자신 또 한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N포세대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에 임하며 의문이었던 ‘사회적 문제로 비추어지는 N포세대를 예술적 관점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자문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시각과 깊이’라는 단어의 발견을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가는 안무가로서 주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제한되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창작하자는 예술관을 정립할 수 있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주제의 공통점을 통해 발견한 움직임이지만 광범위한 주제의 요인과 모습들을 표현하는 부분에 한계를 겪으며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자의 안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예술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명확한 객관성 안에서 한정된 자유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예술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새로운 안무에 더욱 신중히 임하겠다는 자세와 한층 더 폭넓은 무용인으로 성장하게 된 발판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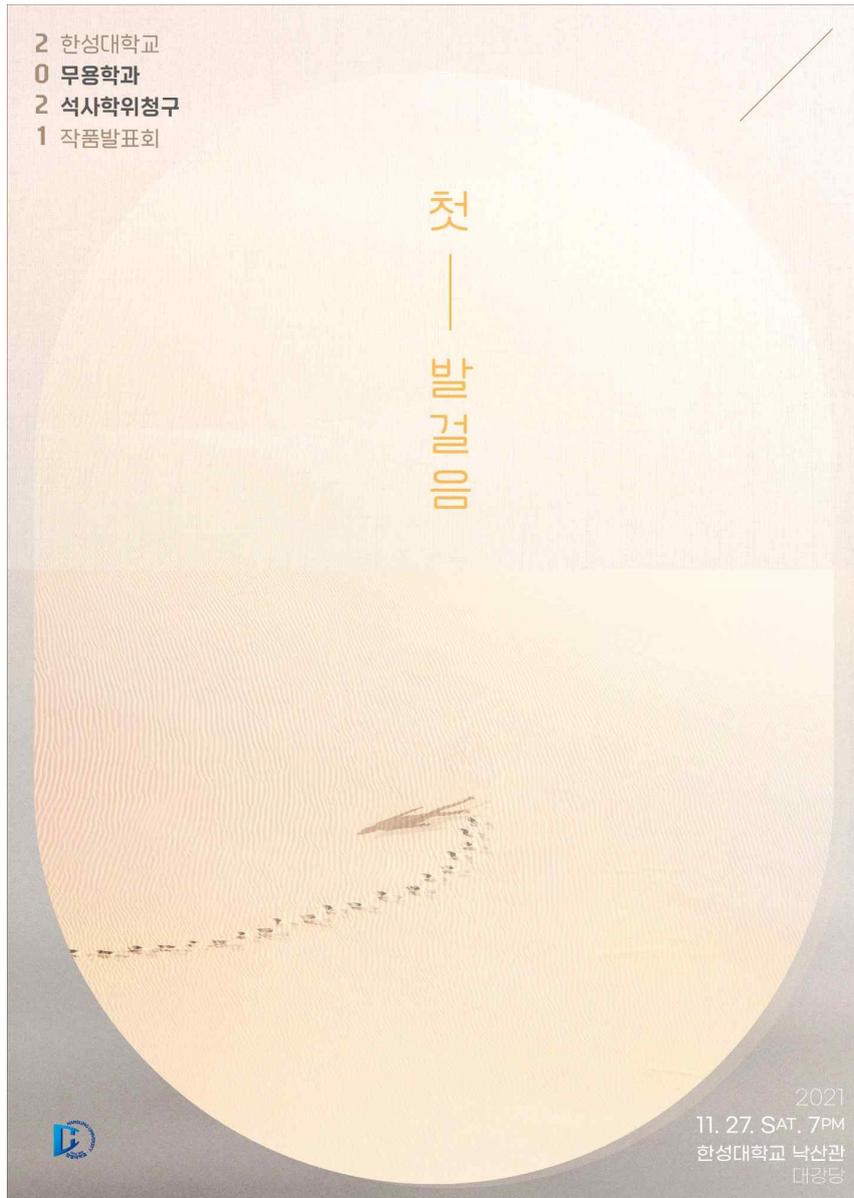
- 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41). (주)교보문고
- 김지애. (2017).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25
- 문예진흥원. (1981). 「장치조명」. P.243-272
- 배은경. (2004). 「빛과 어둠 - 드러냄과 감추어짐의 표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동욱.. (2016) 「청년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 g,체니/자넷스트레이드 (1994). 「무용창작의 기초적 접근」, 김귀자/백현순(역), 현대미학사, p.123
- 최예준. (2021). 「2010년대 영상 콘텐츠에 재현된 '청년 세대'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울
-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연구자 재구성.
- Humphrey, Doris. 김옥규, 김말복, (1983). 「현대무용입문」. 서울: 청하, p.177
- [청년이 미래다] 우리는 왜 'N포세대'가 됐나/(21.12.10)
<https://www.segye.com/newsView/0160210001569>
- Naver지식백과/(21.12.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3345263&categoryId=43667](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3345263&categoryId=43667)
- Tomcat Murr Blog/(21.12.10)
<https://blog.naver.com/shapespeare/221806389226>
- 나무위키/(21.12.6)
<https://namu.wiki/w/N%ED%8F%AC%EC%84%B8%EB%8C%80>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N의 심연 속에서
일 시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pm7시
장 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안무자	박 영 성
출연진	박 영 성, 양 서 진, 김 주 현, 유 예 진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주 최	한성대학교

팜플렛



제 작 사 사 보

어느덧 단풍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끝자락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두 번이 지나는 동안 저희는 교수님들께 많은 애정과 사랑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는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번 졸업 작품 발표회는 지난 2년간의 배움과 노력에 결실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학교생활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 대한 바램과 아쉬움이 남아있을 때 있어 거쳐가는 한 단락의 마침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졸업작을 위해 수없이 고민했던 방법들을,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간들은 모두 그리운 추억들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일 하나하나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더욱 작품에 정확한 색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각자의 색을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이끌어주신 지도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저희에게는 더욱 성장한 무용가 혹은 안무가가 될 수 있게 헌말 다가오는 무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뜻깊고, 소중한 무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발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다소 부족함이 있다면도 애정 어린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생 일동

주 최 발표자



김명연
극작가



박승연
발연



김명연
극작가



박승연
발연

공
연
순
서

1. 환근전 *Return-Again*
2. 박영성 *박영성 N의 심연 속에서(In the Abyss of N)*
3. 신상희 *HAPPY SWINDLE*
4. 김나연



무
용
수
장
의
선
보

제작 **N의 심연 속에서 (In the Abyss of N)**
작품 내용 현실의 중앙값은 마치 실연의 깊은 구렁텅이 같았다.

작
품
의
도

가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가질 수 없어 체념하는 N포세대. N포세대를 품어주는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반면 치솟는 집값, 막대한 대출 상환, 취업난 등 사회와 경제적 압박으로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어린 삶은 앞으로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하는 건가?”

본 무용 창작작은 'N의 심연 속에서(In the Abyss of N)'는 사회적 불만을 체감하면, 포기를 먼저 알아야만 N포세대를 주제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현대인들의 우울한 단면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답답한 미래에서 무언가를 배려하여 겨우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현대인들의 삶은 어두운 실연 속을 걷고 있을 뿐이다.

무
용
수



양서진



김소연

무
용
수



유혜진

지도교수 정석순

ABSTRACT

Analysis on the Work of the 「In the Abyss of N」

Park, Young-Sung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creative modern dance work “Within Abyss of N,” which portrays a gloomy aspect of modern society where people give up various things in their lives due to social and financial restrictions.

People in modern society oftentimes need to give up essential aspects in life because of the rising cost of living, difficulty in finding jobs, increasing student loans, and unstable jobs.

Progressing from Three-Po-Generation (giving up dating, marriage, and kids) to Five-Po-Generation (Three-Po + finding house, and social relationships) to Seven-Po-Generation (Five-Po + dream, and hope)

e) and eventually to N-Po-Generation(giving up countless things), many people are losing hopes in their future.

The researcher questioned “What can be gained from giving up essential aspects of life, and is this what we truly want?” from the modern society and intend to portray how people need to give up important things unwillingly in a perspective of artistic dance. For objective assessment, various media that show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N-Po-Generation were evaluated and “collapse” was the common word found in the this search. The researcher wanted to focus on the depressed aspect of N-Po-Generation by directing the dance work towards a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isolated abyss of N-Po-Generation, which comes from realistic expression of first dimensional act of collapse. By using wireless lighting to create separations of light and dark space, various aspect of N-Po-Generation was portrayed through different visual presentations.

The dance work was created using three key words [N-Po-Generation=Dancer],[Darkness=Abyss],[Giving up=Collapse]. By showing a small hope in a world where many aspects of life are forsaken, “Within Abyss of N” attempts to provide a comfort to modern people living through N-Po-Generation.

【Keywords】 N-Po-Generation, Giving up things, Collapse, Darkness, Abyss